

『國朝寶鑑』1848年 刊本の 刻手に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ngravers of *Gukjobogam*(『國朝寶鑑』) Printed in 1848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 | | |
|-----------------|------------------|
| 1. 緒 言 | 5. 주요 刻手の 板刻활동사실 |
| 2. 『三朝寶鑑』의 간행일정 | 6. 結 語 |
| 3. 監印廳事目과 간행비용 | <참고문헌> |
| 4. 刻手の 동원내역 | |

< 초 록 >

본 연구는 『國朝寶鑑』1848년 板本の 간행사정과 42명에 달하는 刻手の 동원내역 및 주요 刻手の 활동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 결과 慶尙道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19명의 刻手들을 동원하게 된 이유와 校書館의 工匠 劉光弼을 비롯해 前 別武士 權致大, 龜城府에 定配된 前 校書館 刻手 田永性 등 당대 숨씨가 뛰어나고, 그 인물의 성격이 다양한 刻手들의 實名 및 활동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儀軌의 文件을 통해 판각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刻手 料布의 특별한 산정방식 등 刻手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성과라 하겠다.

要語: 각수, 국조보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0년 5월 12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22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history of printing process of *Gukjobogam*(『國朝寶鑑』) published in 1848 and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engravers mobilized for the woodblock public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reason for mobilizing 19 engravers, more than originally planned from Gyeongsang-do(慶尙道) is clarified. And the real names of prominent engravers, including Yu Gwangpil(劉光弼), Kwon Chidae(權致大), and Jeon Yeongseong(田永性) who belonged to Gyoseogwan(校書館) and their engraving activities are identified. This study also presents useful data which could help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engravers, including the materials and costs required for engraving, and the wage system for engravers, by examining the record of government registries.

Key words: Engravers, *Gukjobogam*(『國朝寶鑑』)

1. 緒 言

憲宗 14년(1848)에 간행한 82권 24책 분량의 「國朝寶鑑」은 正祖 6년(1782)에 개관한 68권 22책 분량의 그것에 正祖와 純祖, 翼宗의 寶鑑 셋을 더한 續編이다. 그 纂輯과 監印의 시말을 기록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는 모두 42명의 刻手名이 工匠條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正祖년간의 144명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그 권질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남을 감안하면 개개의 刻手が 맡은 刻字의 일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儀軌를 참고로 한 正祖년간의 「國朝寶鑑」 刻手 연구에 이어 憲宗년간의 「國朝寶鑑」 刻手に 주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國葬都監이나 嘉禮都監과 같은 다른 都監이 작성한 儀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刻手 중심의 匠人에 관한 기록들이 「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서는 비교적 자세하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많은 刻手を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京鄕 각지에서 각별히 우수한 刻手들이 동원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刻手들이 木刻뿐이 아닌 竹刻이나 玉刻, 石刻의 일에 동원된 사례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마디로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刻手に 관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國朝寶鑑監印廳儀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憲宗년간에 간행된 「國朝寶鑑」에 한정하여 「三朝寶鑑」을 판각하는 일이 언제까지 진행되었고, 그 일에 소용된 물자나 비용, 刻手의 料布 등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동원된 刻手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연과 그들이 다른 문헌의 간행에 참여한 사실, 그 솜씨가 우수했던 개개의 刻手 인물을 발굴하는 일 등을 당대의 儀軌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2. 「三朝寶鑑」의 간행일정

憲宗은 丁未年(1846) 7월에 領議政 權敦仁과 함께 처음으로 「國朝寶鑑」의 續纂을 의논하였으며,¹⁾ 이듬해 정월에는 「三朝寶鑑」 纂輯廳의 처소를 궐내에

있는 鑄字所에 설치하도록 정하였다.²⁾ 그 후 길일을 택하여 開局의 일자를 그 해 2월 29일로 하고,³⁾ 9개월 정도 지난 11월 17일에 寶鑑의 纂輯을 끝내고 내용을 교정하기에 이르렀다.⁴⁾ 며칠 뒤에는 監印廳의 처소가 校書館으로 정해진다.⁵⁾

監印廳의 관계자들이 校書館에서 처음 회동을 한 것은 戊申年(1848) 2월 6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8월 7일 『正廟寶鑑』 교정본을 가지고 입계하게 되며, 공식적으로 인출을 시작한 것은 그 나흘 후인 11일 午時였다. 開印의 날짜 역시 開局 때와 마찬가지로 日官이 길일을 推擇하고, 監印廳 郎廳이 국왕에게 아뢴 다음에 정해졌다.⁶⁾ 이어서 純廟와 翼廟의 寶鑑 교정본을 가지고 입계한 것은 같은 달 25일의 일이었고, 인출이 완료된 『三朝寶鑑』을 가지고 국왕이 친히 太廟에 올리는 일을 행한 것은 10월 6일의 일이었다.⁷⁾ 이때의 인본은 목판본이 아닌 바로 활자본이었다.

憲宗은 戊申年 7월 16일에 領議政 鄭元容과 함께 인출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판각용 저본인 刻本과 奉安件, 進上件 각 1건을 먼저 활자로 인출하고 나서 목판을 마련하고, 進上件과 頒賜件을 대대적으로 목판본으로 인출하기로 했다.⁸⁾ 이 때 굳이 활자본을 저본으로 삼고 목판을 마련하기로 한 까닭은 正祖년간의 사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⁹⁾ 寫字官의 형편이나 甲寅字계열인 壬辰字나 丁酉字의 우수성, 廣布의 편의성, 初刊本과 後刊本 간의 字樣 등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1)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啓辭. 丙午 7月 15日. “上曰 國朝寶鑑正宗朝以後尙未續纂(中略) 早晚間當議纂成矣.”

2) 上揭書 啓辭. 丁未 1月 15日. “處所若在闕內則當於鑄字所爲之乎.”

3) 上揭書 啓辭. 丁未 2月 6日. “禮曹啓曰 寶鑑纂輯開局吉日更爲推擇則今月二十九日爲吉云以此日定行何如 傳曰 允.”

4) 上揭書 啓辭. 丁未 11月 17日. “纂輯廳郎廳以摠裁官意啓曰 寶鑑纂輯已訖今方校正矣.”

5) 上揭書 啓辭. 丁未 11月 20日. “監印處所以校書館爲之事.”

6) 上揭書 啓辭. 戊申 8月 9日. “國朝寶鑑開印吉日今日官李秉洪推擇則今月十一日午時爲吉云.”

7) 上揭書 時日 참조.

8) 上揭書 啓辭. 戊申 7月 16日. “元容曰 奉安件及進上件各一件及刻本一件先以活字印出而板刻後進上及頒賜件迨後印出似好故敢達矣 上曰 依此爲之可也.”

9) 김상호, “『國朝寶鑑』 1782년 板本の 刻手 연구,” 『書誌學研究』 44輯(2009. 12), 196.

儀軌의 문건을 통해 개관사실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戊申년 9월 11일이다. 이 때 摠裁官은 監印廳 郎廳을 통해 寶鑑의 판각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차제에 인출할 進上件과 頒賜件의 수, 그리고 이 때 필요한 종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국왕에게 여쭙었다.¹⁰⁾ 비록 9월 초에는 外方刻手의 도착이 늦어져 대대적이지는 아니었으나 校書館의 刻匠과 京刻手들의 손으로 刻板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에는 문건을 통해 「國朝寶鑑」을 이미 새로 간행하였고, 이를 京鄕에 널리 배포할 것이니, 官上件뿐만 아니라 私件도 종지와 粧潢, 蜜, 墨 등 소요 물품을 가지고 本廳에 와서 인출해갈 것을 사방에 알렸다.¹¹⁾ 이 때 이미 새로 간행하였다는 「國朝寶鑑」은 활자본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지방에 문건을 보내어 原編의 舊板을 아울러 修改하고 進上件 및 頒賜件을 모두 전질로 인출하니 필요하면 스스로 인출해갈 것을 통보하였으며, 거기에 드는 비용을 後錄하였다.¹²⁾ 이미 新本과 舊本 전질 26책과 新本 「三朝寶鑑」 4책에 들어가는 값이 정해져서 이 때 즘음해서 刻字의 일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印紙數는 활자본을 통해서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일이다.

外方刻手의 동원에 관한 문건들을 참고하면 아직 10월 초에는 판각의 일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한 달 여 뒤인 11월 중순의 문건에는 寶鑑이 인쇄되고 나서 아직도 상당수가 비용이 없어서 粧潢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刻字의 일이 마무리된 것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이전의 일임이 분명하다.

粧潢의 일은 위와 같은 문건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듬 해 정월 하순까지도 다 끝나지 않아 해당 관아에 소요비용을 더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⁴⁾ 그리고

10) 「國朝寶鑑監印廳儀軌」啓辭. 戊申 9월 11日. “寶鑑板刻既已始役今當次第印出矣進上件及頒賜件定其件數然後所入紙地方可磨鍊.”

11) 上揭書 甘結. 戊申 9월 19日. “國朝寶鑑既已新刊依壬寅年例廣布京鄕是如乎各其司不但官上件或有私件並許印送紙地與粧潢蜜默等物輸送本廳以爲榻去之地爲跡.”

12) 上揭書 移文. 戊申 10월 8日. “國朝寶鑑新刊本榻去事前以發關是在果今次原編舊板並皆修改進上與頒賜並以全帙奉印是如乎道內各處毋論公私件如有願印各自印去.”

13) 上揭書 移文. 戊申 11월 17日. “寶鑑印後尙多粧潢未始(中略)米三十石木五同代錢五百兩即速輸送以爲繼用之地宜當事.”

3월 초에야 『國朝寶鑑』의 粧潢이 끝났음을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이제 粧潢을 마치고 春秋館에 奉安할 진질 26책, 별편 1책과 史官件을 이송하며, 太白山 五臺山 鼎足山城 赤裳山城 등에 奉安할 『三朝寶鑑』 각 4책과 별편 각 1책을 入送한다는 것이었다.¹⁵⁾

결국 『國朝寶鑑』 활자본을 인쇄하여 進上 및 頒賜의 일을 마치기까지에는 戊申 8월 11일부터 己酉 3월 12일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刻手의 일은 9월 초부터 늦어도 11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京鄕의 刻手들이 모여 대대적으로 刻字의 일을 진행한 것은 그 사이 한 달 정도였을 것이다.

3. 監印廳事目과 간행비용

戊申年(1848) 2월 8일 작성된 監印廳事目은 『國朝寶鑑』을 監印할 때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의 원칙을 前例를 참고로 하여 마련한 것이다. 모두 열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本廳의 처소는 校書館 안에 설치한다.

하나, 本廳의 이름은 壬寅年의 전례에 따라 監印廳이라 칭한다.

하나, 사용할 종이와 筆墨, 雜物은 각 담당관사에서 마련한다.

하나, 여러 匠手들은 각 衙門으로 하여금 보내도록 하고, 나머지 匠人은 漢城府에 맡기되, 掖庭署와 여러 높은 官司의 하인이나 각 軍門의 軍兵을 논하지 않고 모두 사역에 推捉한다.

하나, 미진한 조건은 추후 마련한다.¹⁶⁾

이와 같은 조문은 위임 받은 사업을 한정된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14) 上揭書 移文. 己酉 正月 20日. “國朝寶鑑印後未竣粧潢將始工匠料布次前次輸來米錢用盡無餘.”

15) 上揭書 移文. 己酉 3月 12日. “國朝寶鑑今已粧潢本館所奉全帙二十六册別編一册及史官件(中略)赤裳山城等處所奉三朝寶鑑各四册及別編各一册一體入送.”

16) 上揭書 啓辭. 戊申 2月 8日.

서 각종 편의를 외부로부터 조달 받기 위한 권위와 권한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監印廳에서 일할 관원과 서리 등이 확정된 것은 그 5개월여 후의 일이다. 監印廳座目이 바로 그것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監印廳의 총책임자인 摠裁大臣에는 纂輯廳의 摠裁大臣이기도 한 領中樞府事 趙寅永을 임명하고, 그 아래에 戶曹判書 徐憲淳, 戶曹參判 金鼎集, 承政院都承旨 尹致秀 등 세 명의 堂上을 둔다.¹⁷⁾

둘째, 監印廳의 실제 실무책임자인 都廳郎廳은 弘文館 應教인 趙然昌을 임명하고, 監董郎廳으로 成均館 典籍 任百淵, 奎章閣 檢書官 金徹義, 金周教 등 세 사람을 둔다.

셋째, 計士는 康載萬과 崔錫昌 두 사람, 書吏는 工曹의 金時庸을 비롯해 內閣, 宣惠廳, 兵曹, 校書館, 戶曹, 御營廳, 司宰監 등에서 뽑은 10명의 인원, 使令은 戶曹, 兵曹, 宣惠廳, 廣興倉, 軍資監, 司僕寺, 衛將所에서 각기 1인씩 선발한 7명의 인원이 말도록 하고, 그밖에 守直軍士 3명, 待令捕校와 捕卒 각 2명씩을 둔다.¹⁸⁾

이외에도 監印廳에 소속되는 여러 장인이 있는데, 刻手에 국한하여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요 刻手の 인원을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刻板할 분량이다. 당초 활자본으로 太廟 各室에 奉安할 「國朝寶鑑」, 전집 26책은 모두 82편에 2,136장으로 계산되었다. 그 가운데 「三朝寶鑑」의 편당 장수는 다음 표 1과 같다.¹⁹⁾ 여기서 別編의 장수는 2,136장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찌되었든 당시 刻手が 刻板해내야 할 분량은 「三朝寶鑑」의 장수에 제26책의 舊新跋文 6장, 新諸臣姓氏 4장을 추가한 368장 정도였을 것이다.

<표 1> 三朝寶鑑의 편당 장수

	책수	1	2	3	4	5	6	7	별편	계
正祖	23, 24	23	14	23	30	33	28	27	26	204
純朝	25	26	15	20	20	29			6	116
翼宗	26	24	13						1	38

17) 원래 趙斗淳이 監印廳 堂上의 한 사람이었으나, 곧 平安監司로 가서 徐憲淳이 差下되었다.

18)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啓辭. 戊申 7月 10日.

19) 上揭書 卷帙 참조.

실제 監印廳에서 사용한 물품들에서도 刻手의 인원과 刻板의 매수를 확인할 수 있다. 己酉年(1849) 3월 12일 粧潢의 일이 끝나 책을 進上하고 監印廳을 撤罷하면서 처음 활자본을 인쇄하여 進上의 일을 마치기까지 즉, 戊申 8월 11일부터 기유 3월 12일까지 監印의 일에 소용된 잡물을 實入과 用還으로 구별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²⁰⁾

<표 2> 監印의 所用 雜物

구분	물명	수량	물명	수량	물명	수량	물명	수량
實入	帖冊紙	262권 1.5장	卷冊紙	296권 14장	草注紙	167권 3.5장	楮注紙	357권 15장
	白綿紙	3,478권 9.5장	厚白紙	220권 12장	白紙	1,215권 14.5장	自作板	211 立 반
用還	5寸釘	48개	2寸釘	96개	刻刀	31명	校正釘	2개

위 표에서 實入의 종이는 인출부수, 自作板은 목판의 매수, 그리고 用還의 5寸 및 2寸釘은 刻手 인원과 관련이 있다. 刻手 1인당 5寸釘 1개와 2寸釘 2개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戊申 8월 중순에 刻手에게 필요한 物種을 미리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刻手의 이동이나 분실, 불량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하지는 않다. 당시 刻手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살펴보기에 도움이 되므로 그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표 3>과 같다.

특별히 憲宗년간의 「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는 板刻에 소요되는 인건비, 즉 料布²¹⁾와 工錢²²⁾의 내용이 자세하다. 주요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에서 책판 每行의 刊板工錢은 註를 双行으로 계산하여 40行으로 보고 註板 비용 3兩을 1/40로 곱한 값이다. 당시 장인들이 일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았는데, 刻手의 경우에는 각 개인이 刻字한 분량만큼 비용을 따로 받았고, 추가로

20) 上揭書 移文. 己酉 3月 12日. “國朝寶鑑今已粧潢(中略)國朝寶鑑粧潢已竣今方進上矣本廳自今撤罷爲去乎(中略)國朝寶鑑監印時自戊申八月十一日以今三月十二日至所用雜物實入與用還之類區別後錄移文爲去乎依此會減宜當事.”

21) 上揭書 財用.

22) 上揭書 磨鍊.

<표 3> 刻手 所用 物種

물종	(京)刻手	郷刻手
臺床布次正布	40尺	44尺
山猪毛	1斤	
膠末	1斗/8斗	
刻刀	20柄	22柄
鏡子鐵	8個	
5寸釘	22個	22個
2寸釘	44個	44個
中礪石	2塊	1塊
延日礪石	2塊	1塊
炭(每日)	2升	5升
登床	5佐	5坐
水甕		2坐
燒木(每日)		반반丹
燈油(每日)		3夕

<표 4> 工匠의 料布 및 工錢

구분		기준	米	木	錢
料布	工匠	每朔	9斗	3疋	
盤纏	外方刻手回還	遠道 6日	1斗8升		1兩2錢
		中道 4日	1斗2升		8錢
		近道 2日	6升		4錢
刊板工錢	册版	每板 1張			1兩5錢
		註板			3兩
		每行			7分5厘
	校正刻手	每日			7錢

동원된 지역의 遠近에 따라 여비가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憲宗년간에 간행한 『國朝寶鑑』은 전질이 26책으로 西庫에 소장된 正祖년간의 간본 53건의 수를 맞추어 소요부수를 인출 및 粧潢하고 頒賜件에 대비하고자 하였다.²³⁾ 이에 따라 內閣에서 가지고 있는 舊編 白綿紙件 53件的 낙질을 증보하

23) 上揭書 啓辭. 戊申 9月 29日. “西庫所在寶鑑五十三件充數印出以備頒賜玉堂講件充數印送進上寶鑑五十件以全帙印入事入稟.”

고 개장하는데 들어가는 종이가 白綿紙 156권 2장이었고, 新編 53件을 합부하는데 건별 4책에 白綿紙 8권 7장반, 나머지 頒賜件 17건의 건별 26책에 白綿紙 53권 9장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모두 70건을 장정하는 데에는 黃染楮注紙 13장, 後楮厚白紙 2권 12장, 面紙次楮注紙 1권 6장, 馬鬃 10량 7진, 黃蜜 2량 1전 4분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 외에 別編을 제외하고 進上 및 奉安에 필요한 건수 및 책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²⁴⁾

<표 5> 進上和 奉安의 건수 및 책수

구분		관종	종이	건수	책수(건별)
進上		활자본	貼冊紙	1	6
		목판본	貼冊紙	3	26
			卷冊紙	5	26
			白綿紙	30	26
			白紙	12	26
奉安	宗廟	활자본	貼冊紙	1	6
	奉謨堂	목판본	貼冊紙	1	4
	史庫		白紙	4	4
	春秋館		白紙	1	26
	史官		白紙	1	4
	弘文館		白紙	8	4
	內閣		白綿紙	4	4
			白紙	8	4

당시 『國朝寶鑑』 新刊本の 간행이 마무리 되자 8道와 4都에 문건을 보내어公私件을 막론하고 필요로 하면 스스로 인출해가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後錄하였는데, 그 비용은 新舊本 전질 26책은 종이 60권 1장, 錢 7兩 2錢 8分이고, 三朝寶鑑 4책은 종이는 10권, 錢은 1兩 1錢 2分이었다.²⁵⁾

24) 上揭書 磨鍊.

25) 上揭書 移文. 戊申 10月 8日. “國朝寶鑑新刊本榻去事前已發關是在果今次原編舊板並皆修改進上與頒賜並以全帙奉印是如乎道內各處毋論公私件如有願印各自印去.” (같은 날의 甘結에는 新本 4책의 印紙數가 9권 13장으로 차이가 있고, 錢은 같다).

4. 刻手의 동원내역

「三朝寶鑑」의 개관을 위해 刻手를 올려 보내라는 關文을 6道와 4都에 보낸 것은 戊申年(1848) 8월 7일의 일이었다. 이 날은 纂輯廳의 관원이 「正廟寶鑑」 교정본을 가지고 入啓한 날이기도 하였다. 그 사흘 뒤에 活印이 시작되었으니, 外方의 刻手를 동원하기에 그리 늦은 시기는 아니었던 듯하다.

關文의 내용은 「國朝寶鑑」을 刊板하는 일이 시급하니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刻手 중에서 솜씨가 좋은 善手를 慶尙道 5명, 全羅道 5명, 平安道 5명, 黃海道 2명, 忠淸道 3명, 江原道 2명, 水原府 2명, 廣州府 2명, 開城府 2명, 江華府 2명 등을 성화같이 기송하라는 것이었다.²⁶⁾ 30명의 外方刻手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 關文을 보내고 나서 5일 뒤에는 刻手 20명을 漢城府의 각 部로 하여금 정해진 시각 내에 監印廳에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²⁷⁾ 그 20명의 인원은 校書館에 소속된 工匠, 그리고 私手인 京刻手를 합친 수이다.

外方에서 가장 먼저 회답이 온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水原이었다. 8월 15일에 도착한 關文에는 지역 내 刻手匠으로 이름하는 이가 본디 없어서 기송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²⁸⁾ 그로부터 늦은 9월 3일에 廣州와 開城, 江原道 세 곳에서 刻手가 없어 못 보낸다는 문건이 도착하였다. 이 때 특별히 開城에서는 石刻手는 있으나 木刻手는 본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뒤에 강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黃海道에서는 海州의 刻手 朴晉文과 鄭信福 2명을 각별히 뽑아 보낸다는 문건이 도착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刻手名이 儀軌의 工匠秩에 기입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뒤의 平安道の 예처럼 板刻의 일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며칠 뒤 江華에서 원래 돌의 생산지라 단지 石刻手만 있고 木刻手는 없어 못 보낸다고 한 문건이 도착했고, 公州에서 刻手 朴煥伊 1명, 義城縣에서 刻手

26) 上揭書 移文. 戊申 8月 7日. “國朝寶鑑刊板之役萬分時急茲以發關爲去乎道內案付刻手中以善手慶尙道五名(中略)江華府二名到關星火起送俾無國役遲延之弊宜當事.”

27) 上揭書 甘結. 戊申 8月 12日. “國朝寶鑑刊板之役萬分時急以數少案付匠手萬無舉行茲以發甘爲去乎刻手二十名知委各部使之當刻內領付本廳事.”

28) 上揭書 來關. 戊申 8月 15日. “水原留守爲回移事本府素無刻手匠名色故不得起送爲只爲.”

李億只 1명, 慶州府에서 金漢壽 刻手 1명, 南原縣에서 刻手 徐道成과 徐方碩 2명, 雲峰縣에서 刻手 姜彥添 1명을 기송한다는 문건이 도착했는데, 이 중 義城의 李億只(伊)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刻手의 이름이 工匠秩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慶尙道 觀察使로부터 문건이 도착한 것은 9월 8일의 일이다. 그 내용은 安東과 尙州, 善山, 醴泉, 永川, 龍宮, 軍威에서 모두 8명의 刻手를 보내는데, 慶州와 大邱, 義城은 길이 좀 먼 관계로 기한에 맞춰 3명을 바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²⁹⁾ 慶尙道에는 처음에 5명만을 요구하였으나, 몇 년 전에 內閣에서 『御定詩韻』을 관각할 때 慶尙道에서 올린 刻手가 십 수 명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10일 뒤에 보낸 문건에서는 11명을 요구하였다. 문건에 동원할 刻手의 地域과 姓名을 後錄하였는데, 그 인원은 慶州, 尙州, 安東, 永川, 醴泉, 龍宮, 義城, 軍威, 大邱가 각 1인씩이고, 善山만 朴仁淑, 金正業 두 사람이었다.³⁰⁾ 그리고 다시 이십여 일 뒤인 9월 11일에 慶尙監司에게 보낸 문건에서는 추가로 後錄한 刻手 7명을 21일까지 보내주도록 주문하였다. 지금 부역하는 刻手로는 기한에 맞추어 일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때의 인원은 陝川의 孫石得, 申正祿 외에 安義 趙戒彥, 咸陽 崔鳳麟, 山淸 成時宗, 居昌 李才奉, 河陽 金文學 등이었다.³¹⁾ 십 여 일이면 慶尙道까지 문서가 도착해서 해당 고을의 인원을 불러 올려 보내기에 전혀 여유가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安義의 趙戒彥을 제외한 나머지 刻手의 이름이 儀軌의 工匠秩에 보인다. 慶尙道 지역의 우수한 刻手사정과 國役に 기여한 공을 헤아려볼 만하다. 10월 6일에는 安義縣에서 刻手 趙戒彥은 안질로 한 달여 고생하고 볼 수가 없으니 대신 善手 朴千石을 보낸다는 문건이 도착하였다. 朴千石은 工匠秩에 기입된 刻手 중 咸陽의 崔鳳麟³²⁾과 더불어 그 사역일수가 적은 인물에 속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監印廳이 慶尙道에 주문한 인원은 당초 5명에서 곧 11명으로 6명이 추가되었고, 또 다시 7명이 추가되어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29) 上揭書 來關. 戊申 9月 8日. “慶尙道觀察使爲回移事本道刻手安東田性大(中略)道路稍遠趨限未由今纔定色吏罔夜直送京中爲只爲.”

30) 上揭書 移文. 戊申 8月 17日. “向前十一日刻手起送事關文只以五名知委矣(中略)此外如有善手亦爲一一起送.”

31) 上揭書 移文. 戊申 9月 11日. “寶鑑刊板之役極爲浩大以今付役刻手萬無及期完竣之望是如乎.”

32) 上揭書 戊申 10月 6日 참조.

다른 지역의 경우, 全羅道 順天府에서 刻手 1명을 상송한다는 牒報가 도착한 것이 9월 8일의 일이고, 9월 17일에 求禮縣에서 刻手 梁致弘 1명을 기송한다는 문건이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시 慶尙道 晉州營에서 刻手 李長連 1명과 仁同府에서 刻手 金東勗 1명을 당일 기송한다는 문건이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工匠秩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9월 25일에 山淸縣에서 도착한 문건에서 거명한 刻手 成時宗은 그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바 그들의 솜씨에 따라 일부는 돌려보내고 일부는 일을 맡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外方刻手의 동원에 관한 문건 중 늦은 것으로 9월 19일에 平安監司에게 보낸 移文이 있다. 처음 平安道에 보낸 것과는 무려 40일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 내용은 刊板의 일은 많은데 匠人의 수는 적고, 때는 곧 끝내야 하는데 平安道에서 올려 보낸 刻手 5명 중 3명은 板刻에 未諳하여 돌려보내니, 솜씨 좋은 자, 특별히 龜城府에 定配한 田永性이 刻才가 최고이고 速手를 겸하였다고 하니 9월 말까지 도착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문건에서 田永性은 원래 校書館 소속의 刻手였으나, 掖庭署의 하인과 싸워서 平安道 龜城에 귀양을 간 것으로 적혀 있다. 또한 죄인을 불러들이기는 어려우나 사역이 막중하니 올려 보낼 것을 밝히고 있다.³³⁾ 平安道 觀察使는 9월 25일의 문건에서 지역 내에 刻手 인원이 적어 퇴출된 3명 외에는 더 보낼 사람이 없고,³⁴⁾ 9월 26일의 문건에서는 田永性을 상송하도록 龜城府에 지시했으며, 10월 8일의 문건에서는 配囚 田永性이 이제야 營에 도착한 고로 성화 같이 보낸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田永性이 마침내 監印廳에 나아가 刻字의 일을 했는지는 工匠秩에 그 이름이 없고 그 사정이 특별하여 단정하기 어렵다.

일이 끝나고 賞典의 대상이 되어 監印廳別單에 이름을 올린 刻手는 校正都刻手 劉光弼을 비롯해 1등으로 분류된 刻手 文敬淳 등 19명, 2등으로 분류된 外方刻手 李允夏 등 14명, 3등으로 분류된 外方刻手 李聖哲 등 8명을 합하여 모두 42명이다.

33) 上揭書 移文. 戊申 9月 19日. “自本道上送刻手五名內三名未諳板刻還爲下送(中略) 田永成本以芸館案付刻手年前與掖隸相關事定配於道內龜城府而刻才最可且兼速手云矣(中略) 今月晦內到付爲於此外各邑如有善手隨探起送宜當事.”

34) 上揭書 來關. 戊申 9月 25日. “本邑刻手自來數少今此見退三名外更無可堪者不得起送爲只爲.”

이들은 正祖朝 壬寅年의 예에 따라 해당 관아와 道에서 후하게 시상하도록 정하고, 10월 10일 京畿監司, 平安監司, 慶尙監司에게 각각 문건을 보내어 지역출신의 外方刻手를 각별히 후하게 시상하고 그 形止數갯을 보고하도록 주문하였다. 상을 논할 당시 板刻의 일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正祖년간에도 일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外方刻手부터 내려 보낸 예가 있으니, 校書館의 공장들은 늦게까지 나머지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賞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역한 날짜에 따라 板刻의 일을 오래한 京刻手들이 1등으로 분류되고, 비교적 가까이에서 동원되어 적당한 만큼의 일을 한 外方刻手는 2등, 멀리 있어서 그 일을 적게 한 遠道의 外方刻手는 3등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뒤늦게 訓練都監에 보낸 移文에는 「三朝寶鑑」을 刊板할 때 京鄉 刻手를 檢飭한 都牌將 前別武士 權致大가 시종 看役한 효력이 매우 많으므로 訓練都監에서 논상할 것을 주문한 사실이 적혀 있다.³⁵⁾ 權致大의 이름은 賞典의 명단에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후일 명단에 누락된 이유로, 아니면 이때야야 刻手들의 일이 끝나 檢飭의 일 또한 끝난 이유로 그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세하지는 않으며, 다만 그가 과거 활발하게 활동한 刻手였음은 뒤의 주요 刻手의 判各활동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지방에서 施賞에 관한 關文이 올라온 것은 그 해 11월 7일의 일이었다. 慶尙道에서는 刻手에게 米 1石, 正木 1疋, 布 1疋씩 題給한다고 하였고, 平安道에서는 아직 刻手가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오는 즉시 후하게 시상하겠다고 하였다.³⁶⁾ 그 후 12월 10일의 문건에서 刻手들이 늦게 도착하였는바 그들이 원하는 軍任으로 우대하여 調用하겠다고 뜻을 밝혔다.³⁷⁾ 京畿道로부터는 11월 11일에 木 1疋, 布 1疋을 해당 고을에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문건이 監印廳에 도착하였다.

35) 上揭書 移文. 戊申 10月 30日. “三朝寶鑑刊板時京鄉刻手檢飭都牌將前別武士權致大始終看役效力甚多(中略)自本營先付料於別武士以爲待窠陞實之地宜當事.”

36) 上揭書 來關. 戊申 11月 7日. “卽接該府庶尹所報則以爲同刻手等姑未下來是如爲臥乎所待其還現從厚施賞後形止狀聞計料事.”

37) 上揭書 來關. 戊申 12月 10日. “該府庶尹趙冕鎬牒呈內同刻手金正默李允河今纔下來故各從其所願以軍任從優調用是如爲自有等以緣由馳啓後瞻報事.”

5. 주요 刻手의 板刻 활동사실

『國朝寶鑑』의 監印에 관한 제반 사실을 기록한 儀軌 말미 工匠秩에 그 이름이 기입된 刻手는 모두 42명이다. 이들을 校書館의 工匠과 민간의 私手로 구분하고 京鄕의 각 지역으로 구별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의 42명의 刻手는 지역별로 보면 校書館을 포함한 漢城府내의 인원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慶尙道 19명, 平安道 2명, 京畿道 1명의 순서이다. 刻手의 인원이 많은 慶尙道의 경우에 소수의 고을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고을에서 한두 명씩만 동원한 것은 그 지역 사정이나 부담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나름대로 다수의 刻手 인원을 보유했을 忠淸道와 全羅道의 경우, 초기에 刻手를 올려 보낸 바가 있었으나 그 숨씨가 慶尙道 刻手만 같지 않았는지 그 이름을 명단에 올리지 못했다.

<표 6> 지역별 刻手 명단

구 분		인원	刻 手	
校書館		10	劉光弼 文敬淳 高崙鎭 李東郁 李萬吉 李萬根 李應鎭 李東憲 宋興一 申泰榮	
私手	京	10	吳興福 洪箕煥 金斗亨 尹啓昌 劉道鳳 文學柱 黃鶴年 文祺淳 李聖龍 金聖喆	
	鄉	永平	1	田慶錫
		尙州	2	梁鳳來 張啓春
		善山	2	朴仁淑 金正業
		大邱	1	韓國贊
		安東	1	田性大
		義城	1	李億伊
		龍宮	1	金得伊
		陝川	2	孫石得 申正祿
		軍威	1	金福伊
		星州	1	李性喆
		醴泉	1	鄭忠元
		永川	1	劉岳只
		山淸	1	成時宗
		咸陽	1	崔鳳麟
		安義	1	朴千石
		居昌	1	李在奉
		河陽	1	金文學
平壤	2	金正默 李允河		
총인원		42		

刻手名을 통한 傳本의 간행 시기와 장소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위의 42명의 刻手, 그리고 실제 참여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문서상에 이름이 보이는 12명의 刻手를 한 데 자모순으로 배열하면 <표 7>과 같다.

<표 7> 刻手名 目錄

각수명	지역	각수명	지역	각수명	지역
姜彥淡	雲峰	高崙鎭	校書館	金東勗	仁同
金斗亨	漢城	金得伊	龍宮	金文學	河陽
金福伊	軍威	金聖喆	漢城	金正默	平壤
金正業	善山	金漢壽	慶州	文敬淳	校書館
文祺淳	漢城	文學柱	漢城	朴仁淑	善山
朴晉文	海州	朴千石	安義	朴煥伊	公州
徐道成	南原	徐方碩	南原	成時宗	山淸
孫石得	陝川	宋興一	校書館	申正祿	陝川
申泰榮	校書館	梁鳳來	尙州	梁致弘	求禮
吳興福	漢城	劉光弼	校書館	劉道鳳	漢城
劉岳只	永川	尹啓昌	漢城	李東郁	校書館
李東憲	校書館	李萬吉	校書館	李萬根	校書館
李聖龍	漢城	李性喆	星州	李億伊	義城
李允河	平壤	李應鎭	校書館	李長連	晉州
李在奉	居昌	張啓春	尙州	田慶錫	永平
田性大	安東	田永性	校書館	鄭信福	海州
鄭忠元	醴泉	趙戒彥	安義	崔鳳麟	咸陽
韓國贊	大邱	洪箕煥	漢城	黃鶴年	漢城

위의 54명 刻手 가운데 다른 문헌에서 활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먼저 『國朝寶鑑』이 간행된 戊申年을 기준으로 전후 50년 사이에 엮어진 수십 권의 儀軌에서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校書館에 소속된 劉光弼, 文敬淳, 李東郁 세 사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校書館 소속의 高崙鎭, 李東憲, 宋興一, 그리고 京刻手인 尹啓昌의 이름은 한 두 차례 보일 뿐이다. 지방에서 동원된 外方刻手의 경우는 당대 儀軌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工匠秩에 기입된 刻手는 아니지만, 당시 여러 刻手

들을 檢飭하는 일을 맡았던 前別武士 權致大의 과거 刻手로서의 이력은 여기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그와 劉光弼, 文敬淳, 李東郁 등 네 사람이 刻手로서 활동한 사실을 조선말기 백여 년간에 작성된 여러 儀軌에서 확인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儀軌 상의 刻手 활동사실

연도	儀軌名	權致大	劉光弼	文敬淳	李東郁
1800	正祖國葬都監儀軌	각수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각수			
1802	尊崇都監儀軌	목각수			
1812	王世子冊禮都監儀軌	각수			
1819	王世子嘉禮都監儀軌	각수	각수		
1821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각수		
1823	綏嬪葬禮都監儀軌	죽책 각수	죽책 각수		
1825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각수			
1827	上號都監儀軌				옥각수
1830	冊儲都監儀軌			각수	각수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죽각수	죽각수	죽각수
1832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각수
1833	昌德宮營建都監儀軌		각수장		각수장
1835	純祖國葬都監儀軌				각수
1836	宗廟永寧殿重修都監儀軌				각수
1837	嘉禮都監儀軌				목각수
1841	上號都監儀軌		목각수		
1843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각수	
1844	嘉禮都監儀軌		목각수		
1849	憲宗國葬都監儀軌			각수	각수
1853	上號都監儀軌				목각수
1855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각수
1856	純祖仁陵遷奉都監儀軌				각수
1857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				각수
1864	哲宗國葬都監儀軌			각수	

앞의 표를 통해 네 사람의 각수가 주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權致大가 가장 앞서고, 劉光弼이 그 다음이며, 文敬淳과 李東郁은 그 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여러 사람의 刻手가 필요한 각종 都監의 일에 일개 刻手로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당대 제일가는 한 두 사람의 刻手가 필요한 刻字 일에도 특별히 동원되었던 사실이 각종 儀軌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당시 校書館에 소속된 刻手로서 당대 제일의 善手였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54명의 刻手를 寺刹板 刻手目錄을 통해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중복된 이름이 보인다. 먼저 1843년의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와 1850년의 『實錄廳儀軌』에 각각 刻手로 기입된 校書館의 工匠 高崙鎭의 경우, 1853년 京畿道 楊洲 內院庵板 『廬山蓮宗寶鑑』에서 金斗亨, 金殷錫, 盧慶善, 文敬淳, 文祺淳, 宋興駟(一), 申泰榮, 安亨壽, 李萬根, 李萬吉, 田慶錫, 田永聖, 洪箕煥 등과 더불어 刻手로 활동하였다. 당시 內院庵이 王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찰이어서 校書館의 刻手들이 佛書刊行에 다수 동원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해에 內院庵에서 간행된 『佛說觀無量壽佛經』에는 京刻手 文學柱(周)외에 몇몇의 刻手 이름이 보인다.

京刻手인 尹啓昌은 1824년의 江原道 高城 楡岾寺板 『造像經』에 刻工으로 참여하였으며, 또 校書館 工匠이었을 田永性(聖) 등 일부는 1854년 江原道 鐵原의 聖住庵板 『維摩詰所說經』의 刻手로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外方刻手로서는 永平의 田慶錫이 위의 楡岾寺板과 內院庵의 두 板本에서 그 이름이 보일 뿐이다.³⁸⁾

6. 結 語

憲宗년간에 正祖와 純祖, 翼宗의 세 寶鑑을 편입하여 『國朝寶鑑』을 續編하고 刊行할 때 그 纂輯과 監印의 시말을 기록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는 42명의

38)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134-192.

刻手秩에 포함해 여러 가지 刻手 사실이 기입되어 있다. 그 儀軌의 기록을 중심으로 刻手에 관해 밝힌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朝寶鑑」은 금속활자로 판각용 저본을 마련하여 번각함으로써 正祖년간의 「國朝寶鑑」과 그 체재를 같게 하였으며, 활인부터 進上 및 頒賜의 일까지에는 戊申 8월 11일부터 己酉 3월 12일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중 刻手의 板刻 일은 9월 초부터 10월말 내지 11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둘째, 監印廳事目에 근거하여 監印廳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비용 등은 모두 외부 관아로부터 조달하였다. 刻手가 판각해야 할 장수는 모두 368장 이상이었고, 自作板은 모두 211호 반이 소요되었다. 刻手에게는 1인당 5寸釘 1개와 2寸釘 2개가 지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인원보다 많은 양이 소비되었다. 刻手는 다른 장인과 달리 개인이 刻字한 분량만큼 댓가를 따로 받고, 동원된 지역의 遠近에 따라 별도의 여비를 제공받았다.

셋째, 인출부수는 활자본이 3건, 목판본으로 頒賜件이 西庫에 소장된 正祖년간의 간본 53건을 포함해 70건이고, 進上件이 50건이며, 이밖에 公私件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 비용을 마련하여 따로 인출하도록 했다.

넷째, 監印廳에서 京鄕의 관아에 요구한 刻手 인원은 校書館과 漢城府에 각 10명씩 20명, 慶尙道를 비롯한 6道와 水原府 등 4都에 각기 2명에서 5명씩 30명으로 모두 50명이었다. 그러나 外方刻手의 인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慶尙道에서 19명을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平安道 2명, 京畿道 1명에 불과했다.

다섯째, 校正都刻手 劉光弼을 비롯해 1등으로 분류된 刻手 文敬淳 등 19명, 2등으로 분류된 外方刻手 李允夏 등 14명, 3등으로 분류된 外方刻手 李聖哲 등 8명, 모두 42명이 賞典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正祖朝 壬寅年의 예에 따라 해당 관아와 道에서 후하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京鄕 刻手를 檢飭한 都牌將 前別武士 權致大는 訓練都監에서 논상하도록 하였는데, 그는 일찍이 純祖년간에 劉光弼 등과 더불어 각종 王室使役に 刻手로 참여하였음이 당대 여러 儀軌에서 확인되었다.

일곱째, 儀軌의 문건에 나타나는 모두 54명의 刻手 가운데 다른 儀軌나 寺刹板

에서 그 활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는 校書館에 소속된 劉光弼을 비롯해 文敬淳, 李東郁, 高崙鎭, 李東憲, 宋興一, 申泰榮, 李萬根, 李萬吉, 그리고 京刻手인 金斗亨, 文祺淳, 文學柱, 尹啓昌, 洪箕煥, 京畿道 永平 刻手인 田慶錫 등이 있었다.

여덟째, 寺刹板의 간행에도 동원되었던 校書館의 刻手 田永性(聖)은 掖庭署 하인과의 다툼으로 平安道 龜城府로 定配되었으나, 刻才와 速手를 겸하였다고 하여 뒤늦게 監印廳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름이 工匠秩과 賞典에 보이지 않아 실제 刻字의 일을 맡았는지는 알 수 없다. 平安道 등에서 올려 보낸 여러 명의 刻手들은 刻字의 솜씨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기도 했다.

<참고 문헌>

- 「國朝寶鑑監印廳儀軌」.
- 「憲宗實錄」.
- 「正祖國葬都監儀軌」 1800.
-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1800.
- 「尊崇都監儀軌」 1802.
- 「王世子册禮都監儀軌」 1812.
- 「王世子嘉禮都監儀軌」 1819.
-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1821.
- 「綏嬪葬禮都監儀軌」 1823.
-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1825.
- 「上號都監儀軌」 1827.
- 「册儲都監儀軌」 1830.
-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1830.
-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1832.
- 「昌德宮營建都監儀軌」 1833.

- 「純祖國葬都監儀軌」 1835.
「宗廟永寧殿重修都監儀軌」 1836.
「嘉禮都監儀軌」 1837.
「上號都監儀軌」 1841.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1843.
「嘉禮都監儀軌」 1844.
「憲宗國葬都監儀軌」 1849.
「上號都監儀軌」 1853.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1855.
「純祖仁陵遷奉都監儀軌」 1856.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 1857.
「哲宗國葬都監儀軌」 1864.

김상호. “「國朝寶鑑」1782년 板本の 刻手 연구.” 『書誌學研究』 44집(2009. 12). 193-209.

김상호. “英祖年間の 王室墓域 石刻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43輯(2009. 9). 93-114.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書誌學研究』 41輯(2008. 12). 67-81.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研究.” 『미술사연구』 15집(2001). 109-149.

정형우. “「國朝寶鑑」의 편찬경위.” 『東方學志』 33집(1982). 157-185.

